

넷플릭스에 맞선 웨이브의 반격… 콘텐츠에 3000억 투자

성장 목표로 유료 가입자 500만명·매출 5000억
넷플릭스 베이직 요금보다 저렴한 저가 전략 구상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를 겨냥해야 한다는 지적도

지상파 3사 통합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푹'과 통신업체의 '옥수수'가 만난 토종 OTT 플랫폼 '웨이브'가 오는 18일 공식 출범한다. 웨이브는 2023년 말 유료 가입자 500만명, 연 매출 5000억원 규모의 서비스로 성장시킨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특히 국내 OTT 최초로 총 3000억원을 들여 대작 드라마 등 콘텐츠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오리지널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전략이다. '넷플릭스의 대향마'가 되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다. 특히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이 하반기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웨이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콘텐츠 투자에 3000억·500만 유료 가입자 목표…저가 전략 펼치는 웨이브

16일 웨이브를 운영하는 콘텐츠웨이브는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웨이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장 등 정부 관계부처 수장들이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양승동 KBS 사장, 최승호 MBC 사장, 박정훈 SBS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등 콘텐츠웨이브 주주사 사장단도 한자리에 모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장은 "올해 해외 OTT를 이용하는 국민이 국내 OTT의 2배 가까이 된 시점에 방송·통신사가 손을 맞잡은 웨이브의 출범은 의미 있는 시도"라며 "방통위는 미디어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간 상호협력을 지원하고 융합 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웨이브 운영사인 콘텐츠연합플랫폼 이태현 대표는 "국내 OTT 산업 성장을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에도 단계적으로 진출하는 등 콘텐츠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가격 프로모션도 내걸었다. 요금제는 베이직(HD) 7900원, 스탠다드(FHD) 1만900원, 프리미엄(UHD 포함) 최



웨이브 이미지. /콘텐츠웨이브

웨이브가 경쟁력으로 내세운 것은 자체 제작 콘텐츠다. 초기 재무투자 유치를 통해 마련된 자금을 기반으로, 오는 2023년까지 총 3000억원을 콘텐츠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출범 초기 지상파방송 3사 대작 드라마에 투자, 방송편성과 함께 OTT 독점 주문형비디오(VOD)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향후 드라마 이외에도 다양한 장르에 투자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네트워크는 글로벌 사업자와 맞설 웨이브 만의 퀄리티 콘텐츠다. '넷플릭스'뿐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는 마블·스타워즈 등을 보유한 월트디즈니와 HBO·워너브라더스 등을 가진 AT&T가 신규 OTT 서비스를 내놓는다. 바야흐로 미디어 시장의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지는 셈이다.

상위 화질) 1만3900원 등 3종으로 구성했다. 18일부터는 론칭 기념 프로모션으로 신규 가입자에게 베이직 상품을 3개월 간 월 40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넷플릭스의 가장 저렴한 베이직 요금이 월 95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저가 전략을 펼치는 셈이다. 웨이브는 이를 통해 2023년까지 500만명 규모의 유료 가입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한편, 경쟁사인 넷플릭스의 한국 가입자는 184만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월 1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가입자 다수를 확보하고 콘텐츠를 통해 경쟁력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저가 전략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즈니·넷플릭스 공세에 '킬러 콘텐츠'는 어쩌나…“글로벌 시장 겨냥해야”

과제는 글로벌 사업자와 맞설 웨이브 만의 퀄리티 콘텐츠다. '넷플릭스'뿐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는 마블·스타워즈 등을 보유한 월트디즈니와 HBO·워너브라더스 등을 가진 AT&T가 신규 OTT 서비스를 내놓는다. 바야흐로 미디어 시장의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지는 셈이다.

네트워크는 지난해 투자액이 120억 달러(14조2000억원)인 것에 비하면, 웨

이브가 밝힌 3000억원의 투자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웬만한 대작 드라마는 한 편 당 200억~300억원 정도의 제작비가 듣다. 3000억원은 드라마 10~15편 정도 찍을 수 있는 수준이다. 투자한 만큼 성과가 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웨이브의 타깃도 좁은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를 겨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한류 문화가 전파된 동남아시아 진출 등을 염두에 두고 콘텐츠를 만들어야 글로벌 시장에서 웨이브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성동규(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 한국OTT포럼 회장은 "3000억원 정도의 투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통 드라마보다 10~20분 길이의 웹드라마나 웹툰, 웹소설 등을 기반으로 한 OTT 특성에 맞는 독특한 콘텐츠 등을 제작해야 한다"며 "특히 타깃을 글로벌 시장으로 두고 K팝을 포함한 한국적 콘텐츠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 회장은 "지상파와 통신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독립 법인으로 출발해 많은 가능성을 열어둔 의미에서 웨이브 출범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김나인 기자 silkn@metroseoul.co.kr

정수기의 끝없는 진화… 업·다운도 자동으로

LG전자 최대 10cm까지 자동
'LG 퓨리케어 상하좌우 정수기'

LG전자가 편의성을 한층 강화한 'LG 퓨리케어 상하좌우 정수기'를 16일 출시했다.

신제품은 국내 시장에 출시된 정수기 가운데 처음으로 출수구가 상하좌우로 움직인다. 기존에 출시한 퓨리케어 슬립스윙 정수기와 마찬가지로 출수구와 받침대가 좌우로 180도까지 회전할 수 있다.

LG전자는 신제품에 자동 업다운 기능을 추가해 편의성을 강화했다. 고객이 정수기 받침대에 컵을 올려놓고 출수 버튼을 누르면 출수구가 위아래로 최대 10센티미터(cm)까지 자동으로 움직인 뒤에 물이 나온다. 또 출수구 부근



LG전자가 16일 편의성을 한층 강화한 'LG 퓨리케어 상하좌우 정수기'를 출시했다.

/LG전자

에 있는 센서가 컵의 높이를 감지해 출수되는 과정에서 물이 튀는 것을 줄여 준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LGU+ 5G, 中에도 통한다… 40개 도시 로밍

차이나유니콤과 제휴 맺고 제공
'V50 씽큐' 이용고객 우선 적용

LG유플러스는 중국 이동통신 사업자인 차이나유니콤과 제휴를 맺고 5G로밍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가입자 3억200만명을 보유한 중국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차이나유니콤과 제휴, 16일 한국시간 기준 00시부터 자사 5G 고객을 대상으로 5G로밍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서비스 정식 개시는 차이나유니콤 공식 5G 상용화 시점인 9월 말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차이나유니콤은 지난 5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7개 도시에서 5G 서비스를 시작하고, 8월부터는 1만 7000개의 기지국을 기반으로 주요 40개 도시에서 중국 내 5G 시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LG유플러스 직원이 차이나유니콤과의 제휴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와 차이나유니콤은 지난 4월 5G로밍 연동에 대해 양사 협의를 마치고 6월부터 중국 현지에서 5G로밍 테스트를 진행해왔다. 시범 상용망 연동이 8월 16일 완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LG유플러스 5G 가입자들은 중국에서 5G로밍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나인 기자

현대글로비스, 5년 연속 DJSI 편입

〈지속가능 경영지수〉

글로벌 운송 부문 66개사 가운데 5위

현대글로비스는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아시아·퍼시픽 지수와 코리아 지수에 5년 연속 동시 등재됐다고 16일 밝혔다.

DJSI는 지속가능 경영 가치를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지수 중 하나다. 세계 최대 금융정보사인 미국 S&P 다우존스인덱스와 투자평가사인 스위스 로베코샘이 함께 만들었다. 매년 분야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들을 종합 평가해 상위 10% 정도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수에 편입된다.

현대글로비스는 글로벌 운송 부문에서 66개사 가운데 5위를 기록해 지난해 평가보다 11계단이나 뛰어 올랐다. 국내 물류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아시아·퍼시픽 지수 운송업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글로비스 외 일본(3개)·호주(2개)·홍콩·뉴질랜드·싱가포르(각각 1개) 기업이 등재됐다.

현대글로비스는 2015년 국내 물류기업으로 처음 DJSI 아시아·퍼시픽 지수와 코리아 지수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올해까지 5년 연속 글로벌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정연우 기자 ywj964@

출동 보안 서비스 더 똑똑해진다

KT-KT텔레캅

'기가아이즈 아이가드' 출시

KT는 보안 전문 그룹사인 KT텔레캅과 함께 업계 최초로 플랫폼 기반의 지능형 출동 보안서비스인 '기가아이즈 아이가드'를 16일 출시한다.

기가아이즈 아이가드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앱)과 웹을 통해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방범 센서에서 이

상 신호가 감지되면 관제센터에서 상황 파악 후 보안 요원이 출동해 24시간 고객의 안전을 지키는 지능형 출동 보안 서비스다.

기가아이즈 아이가드는 영상보안과 출동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고 요금을 통합했다. 일반적으로 시설·환경에 따라 개별 요금을 책정하는 견적형 요금제와 달리 카메라 수에 따른 정액형 요금제를택했다.



KT 모델들이 17일 출시된 기가아이즈 아이가드를 소개하고 있다.

/KT

또 영상을 클라우드로 저장하기 때문에 현장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이나 분실 우려가 없고 고장, A/S 관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